

민주 야권통합 장애물 걷히나

통합 수임기구 역할 ‘통합협상단’ 공감

외부세력 통합·경선 룰 협상 재개할 듯

야권통합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통합 수임기구 구성 방법과 역할을 놓고 대립하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혁신과통합’ 등 세 세력이 사전에 경선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오는 11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염두에 뒀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은 11일 전당에서 통합만을 결의한 뒤 전당에서 꾸려지는 통합수임기구가 세 세력과 경선을 협상을 마무리하지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별도 회동을 갖고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외부세력과의 ‘통합협상단’을 통합수임기구에 준하는 기구로 꾸리면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손 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지금 당내 사정을 감안하면 수임기구에 준하는 통합협상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전당대회 이후 공식적으로 꾸려질 수임기구와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통합협상단에 박 전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당권주자들의 대리인을 참여시켜 외부 세력과

경선룰을 논의해야 향후 벗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 꾸린 전대준비위원회에도 당내 각 세력을 참여시켜 통합협상단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했다.

통합협상단이 새로 꾸려지면 당내 부적으로 당권주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흡수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와 함께 당의 내분으로 중단된 외부세력과의 통합 협상을 재개하는 틀이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선을 협상이 남아있어 통합협상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내에 당권 주자 간 경선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외부세력도 지도부 선출방식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당원주권론’에 대해 ‘혁신과 통합’뿐

아니라 민주당 내 다른 당권주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손 대표는 물론, 한명숙 전 총리와 김부겸·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시민 참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통합을 위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의제로 ▲통합추진 경과보고 및 통합결의의 건 ▲통합수임기관 지정의 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무효화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채택했다.

당무위는 또 임시전대 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선임하는 한편 대의원 명부 승인 권한을 당무위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했다. 당무위는 이와 함께 통합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은 최고위원회에서하기로 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선·대선 광주연대’ 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연대기구인 ‘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나라 쇄신안 ‘적랑속으로’

공천물갈이·당청관계 등 최고위 결론 못내 4일 재소집

한나라당이 쇄신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쇄신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일 다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이 당 정체성 재정립·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윤리기준 등 자정노력 강화·공천기준 등 쇄신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4일

최고위에서 결론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인적쇄신을 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쇄신안이 만들어지면 지도부가 희생해야 다른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열릴 최고위에서 파격적인 인적쇄신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홍 대표는 ▲현역의원 공천 재심사

▲법조계 인사 공천 대폭 축소 ▲나이·선수와 상관없는 이기는 공천 등을 간헐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건들이 공천 원칙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위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남경필 최고위원은 “당과 지도부가 먼저 반성문을 써야 한다. 그래야 해법이 나온다”며 “우리가 먼저 반성문을 쓰고 청와대와 대통령도 같이 가만 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내분에 속끓는 혁통

일부 인사들 “당대당 통합 아닌 영입” 주장

야권통합 방식에 이어 통합수임기구 역할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야권통합의 한 축인 혁신과 통합(이하 혁통) 등 비(非) 민주당 세력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통합 대상이 아니라 영입 대상이라고 무시를 당한데다, 통합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혁통이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영입·입당의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혁통 쪽에서는 “무릎 꿇고 들어오라는 소리냐”, “도를 넘어서었다”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혁통 관계자는 “통합정당이 최소한 신뢰는 줄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지금 민주당 내 논란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통합 일정을 재검토할 수 밖

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혁통 등 비 민주당 세력이 만든 ‘시민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는 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혁통 관계자는 “우리가 ‘시민통합당’을 창당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창당”이라며 “통합 전망이 불투명한데, 민주당이 지금처럼 기득권을 고집한다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통합 연설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도 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야권 통합정당 합류를 공식화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내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노총은 노동문제를 통합정당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로 정립한 뒤 통합정당 참여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운태 “통합전대 국민참여경선해야”

강운태 광주시장은 야권 통합전대 대회 방식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근 서울에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만나 “통합전대 대회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소통문화가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최고위원 측이 1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은

통합정당 대표 출마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 대표가 되면 민주적으로 정당문화를 바꿔 줘고 유능한 인재들이 당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주·전남 당원을 우대하는 첩경”이라며 “40대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기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관규 순천시장 사퇴…총선 출마 선언

노관규 순천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노 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며 순천의 정치적 고립과 위기를 타개하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제가 유치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국비 예산확보,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시장의 위치만으로는 정치적 한계를 절감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정치적 역할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시장직 중간 사퇴에 대해 시민이 크게 섭섭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선을 통해 배운 고 익힌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책임을 갖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정가 라운지

이낙연,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토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장애인 문화예술가의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변경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장애예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에 예술인에게선 표현될 수 없는 독특성과 창작성이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서 장애예술장르가 개척되는 것에 중심이 실어 져한다”고 지적했다.

“다목적 체육관 남구 재정 악화”

광주시의회 김민중(민주·광산 4) 의원은 1일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자연녹지공간으로 예정된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립계획이 수립된 만큼 공청회 등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47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임현모, 고교 졸업생 대상 특강

임현모 광주교대 전 총장이 최근 졸업생 앞둔 광주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와 졸업생들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교육위원을 지낸 임 전 총장은 지난달 25일 문정여고, 1일 동신여고와 송일고에서 특강을 했고, 오는 12일에는 동신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속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갯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제준) 010-5311-0086

대형체인점 임대상담 환영

토지면적 **2247 m²** (680평)
지하 **1256 m²** (380평)
나이트클럽 적합!!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료!

권리금 없는 마지막 남은
총장로 황금 상권 임대!!

문의 1661-3232 | H,P 010-4794-8092

(주)미투종합건설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 | 문 | 방 | 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집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